

라이스 “남북정상회담 지지” 재확인

APEC 참석 韓美 외무회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중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은 6일 오후 호주 시드니 국제회의장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6일 오후 호주 시드니 국제회의장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현안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처리문제, 한국인의 미국비자문제 프로그램 가입, 한미동맹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50분간 회담한 두 사람은 북핵 문제와 관련, 최근 진행된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 모멘텀이 조성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향후에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회담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두 사람은 또 차기 6자회담 본회의가 9월 중에는 개최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달 중에는 6차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내달 6자회담서 비핵화 2단계 로드맵 확정

특히 두 장관은 다음달 6차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9월 6자회담 본회의에서 마련할 비핵화 다음 단계(2단계) 로드맵을 승인하기를 기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분명한 지지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송 장관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병행 추동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런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6차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동북아 디자인에 대해 추진과 관련하여도 의미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다음달 초 열리는 남북정

21개 APEC 회원국 각료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 협상(DD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APEC의 기여,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 통합 방안, 무역원활화 및 지식재산권, 경제기술협력 등 경제·통상 의제와 관련한 역내 교역여건 조성 위한 대(對) 태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FTAAP는 APEC 회원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전체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는 구상이다. /시드니=연합뉴스

‘중국산 콘돔도 불안’ 美 10만개 반환 조치

식·음료품, 장난감, 타이어 등에서 시작된 중국산(産) 제품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콘돔까지 확산되는 등 미국 사회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명 완구업체인 마텔은 중국산 완구류에 대한 3번째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중국 관리들이 다음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10~11일 이틀간 미국 관리들과 중국 제품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

◇안전 논란 콘돔까지 확산=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D.C.당국이 에이즈 예방을 위해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배포해온 중국제 콘돔 10만개가 배포되지 않은 채 반환됐다. 이는 지금까지 D.C.당국이 배포해온 전체 콘돔 65만개 가운데 15%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이다.

마텔사, 중국산 완구 3번째 리콜 美-中 내주 안전문제 협의키로

콘돔을 배포해온 단체의 관계자들은 “콘돔이 가짜가 아닌 지 의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기를 꺼린다”면서 일반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비닐이나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왜 포장을 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마텔 중국산 완구 3번째 리콜=마텔은 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바비 상표로 생산된 8종류의 애안동물과 가구 장난감 및 3종류의 ‘피셔-프라이스’ 상표 장난감 등 모두 11종류의 장난감 84만

8천개에서 위험한 수치의 납성분 페인트가 검출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텔사의 중국산 완구 리콜은 지난달 14일 1천900만개의 장난감을 리콜한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5주일 사이에 3번째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에 리콜되는 장난감은 미국에서 판매된 53만개와 미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된 31만8천개이며 리콜 대상 장난감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다.

◇미·중 중국산 제품 안전문제 협의=10~11일 미국에서 열리는 ‘중미 소비자 제품 안전 정상회담’은 2005년 베이징(北京) 1차 회의 후 2년마다 열리는 것으로 지난 수개월간 안전하지 않은 각종 중국 제품들이 리콜되거나 발견된 후 개최되는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 로이터·AP=연합뉴스

‘비아그라’ 탄생 15주년…남성 3천만명 복용

탄생 15주년을 맞이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가 고개 숙인 남성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효과를 발휘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신문은 비아그라가 현재 20여 개국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된 것 이외에 시차적응, 심부전, 조루증, 당뇨증세, 경화증, 통증, 조산, 만성 골반통, 기억상실, 손발이 떨

리는 레노병, 뇌졸중 등에 효험을 발휘해 아스피린과 맞먹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집트 카이로대학병원이 섹스없이 사는 기혼 남성 35명을 대상으로 비아그라를 복용시킨 결과 32명이 효과를 보였고 아르헨티나에서 시차적응을 극복하는데 비아그라를 사용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꺾어놓은 꽃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른바 ‘비아그라’ 효과를

발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비아그라의 출발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비아그라는 1992년 영국 웨일스의 임상 실험연구소에서 협심증 치료제(약품명 UK-92480)로 개발됐으나 기존의 치료제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오히려 건강한 지원자들이 참여한 임상실험에서 소화불량, 허리 통증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기 증상이라는 부작용까지 속출했다. /연합뉴스

金 국방도 방북...NLL 논의하나

내달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자격

남북국방장관 회동여부도 관심

김정수 국방장관이 다음 달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6일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의 방북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김 장관의 방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000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하고 군사 신뢰구축 방안 협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 장관이 정상회담의 수행원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1차 정상회담 때는 당시 김국현 국방부 군비통제관이 일반 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수행원에 포함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우발적 무력충돌 억제 방안 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발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NLL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NLL을 다른 군사신뢰 구축 방안 논의와 연계시켜왔기 때문에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남북 국방장관이 별도로 회동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만약 남북 국방장관이 별도로 회동할 기회가 마련된다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삶의 질’ 1위 노르웨이

영 이코노미스트 183국 분석

세계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노르웨이가 꼽혔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83개국의 각종 경제·사회지표를 비교분석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세계 2008(Pocket World in Figures 2008)’에서 노르웨이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노르웨이에 이어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호주, 4위는 아일랜드, 5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에 들어 7위에 랭크됐고,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각각 6위와 8위를 기록했다. 이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3개국이 나란히 9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초강력 허리케인 니카라과 강타

초강력 허리케인 펠릭스가 5일 니카라과 북동부 해안으로 상륙해 통과하면서 최소한 21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군 구조정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미스키토만 인근 주민들. /AFP=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aewoo Air Conditioning. Title: '연습대가 막짜르면 절감되는 냉방' (When you practice cutting corners, cooling is saved). Features: '정체오' 원격의심, 집중냉방이 핵심이다. Includes contact info for Daewoo Air Conditioning Co., Ltd. TEL: (062)262-0101.

Advertisement for Kaltour travel agency. Title: KALTOUR (위·신·해·여·행·리·지·산·업). Lists travel packages for Jeju Island: 제주도 호박기 한라산 등반 (150,000원), 제주도 호박기 요도여행 (140,000원), 제주도 호박기 여행 매일 출발, 제주도 호박기 요도여행. Includes contact info for Kaltour Travel Agency.